THE DONG-A ILBO (THE Oriental Daily News)
西紀一九四六年九月七日(土曜日)

東亞日報

京城府太平通 東亞日報社

社說

北朝鮮勞働黨聲明에 對하야(下)

四

八、一五解放後의 混亂軋轢에 對하야 左右翼의 孰是孰非를 論할 必要는 없지만 그混亂과 軋轢이 우리民族內部의 일이어든 이를 批判하며 反省하는 것은 民族의 當然한 義務가 아니면 안될것이다。따라서 左右翼을 莫論하고 過去를 反省하는것은 發展을 約束하는것일뿐아니라 三千萬民族에 對한 良心的指導者의 當然한 態度일것이다。거기에는 自色主義의 宗派固執이나 過誤의 理論化가 아니라 虛心坦懷의 民主原則에 立脚한 自己修正이 아니면 안된다。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北朝鮮勞働黨의 新發足에 期待하엿고 南朝鮮共産黨의 發展的動搖에 關心을 가젓든것이다。다시 말하면 外國依存의 隷屬이 아니라 解放民族의 自主獨立을 戰取하는 全民族的行動統一을 促進시키는 歷史的瞬間을 期待하엿든 것이다。

五、共産黨路線의 自己修正이 世界的傾向인同時에 南朝鮮共産黨內의 自己批判鬪爭은 한個의 歷史的課業으로 規定하는것이 現實의 科學的究明이라고 할것이다。어느 新進大會派의 反幹部聲明과 自己批判鬪爭에 對하야 北朝鮮勞働黨大會에서는 이를 反駁할뿐아니라 『反中央』態度는 民族의 不利한 時期에 怨讐라고까지 酷評하엿으나 自己批判의 實踐路線이 이지경에이르러서는 더욱히 在來의 北黨自體와 自己矛盾을 暴露하는것이라 할것이다。民族統一과 政權樹立의 促進을 爲하야 良心的愛國者와 自己反省과 祖互協力을 要望하는 此際에 北朝鮮의 對南朝鮮聲明은 自己修正이란 歷史的意義를 忘却할뿐아니라 共産黨路線에 內包된矛盾의 解結整頓을 阻害시키는 役割밖게는 아무것도 없엇다。그러므로 우리는 그聲明을 一方的要求인同時에 國際政局의 逆行이라고 指摘하는바이다。

六、勞働黨發足의 歷史的意義가 一黨獨裁나 多數黨의 少數黨倂呑이 아니라 對等立場에서 發言權의 均等을 享有하는 全民族의 總意를 反映시키는 것이 아니면 안될것이다。그러므로 北朝鮮勞働黨의 決定事는 一方的인 宗派性發露인同時에 民族的良心과 政治的愛黨心에서 出發한 自己修正情熱을 蹂躪하는 것뿐이다。朝共大會派의 自己批判態度를 攻擊하는 것은 너무도固陋한 獨善일 뿐아니라 發展에로指向하는 自己反省을 抑制하는 獨裁다。勿論南朝鮮 左翼運動이 過去와같이 共黨專制의 指示에 追從할바는 아니로되 모처럼 싹트는 朝鮮理念의還元 民族自我의 發見을爲한 自己修正의 萌芽를 짓밟는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不幸을 增大시키는것밖게는 아무것도 없다。『北朝鮮勞働黨』이 看板만 박꾸어노코 依然 共産黨獨裁政治를 繼續한다면 南朝鮮에있어서는 左右翼을 莫論하고 北朝鮮의 事態를 正視하는 한便 朝鮮民族의 自主性과 統一政權의 樹立을 爲한 行動統一의 至上命令을 嚴守하여야한다는것을 銘念하지안흐면 안된다。

注目할 左翼의 歸趨

合黨은 黨首도 몰르는 突發事

左翼三黨合同은 朝共、人民兩黨의 內訌으로 말미암아 그의 完成과 解決이 있을때까지 保留하기로 되엇든바 突然지난四日 合黨推進派에서는 三黨合同準備委員會 連席會議를 開催하고 宣言綱領草案等을 發表하엿다。이에 對하야 人民黨、新民黨의 責任者는 全然 아지못하는 意外의 突發事로서 果然 이것이 民主原則에 立脚한 大衆黨으로서의 合黨인가 그러치않으면 共黨獨裁의 指令에 움지기는 一聯의 事實로 볼수있을가 何如튼 黨首도 아지못하는 合黨問題를 中心으로 今後 左翼政界의 歸趨는 자못 注目된다。

幹部몰래 合黨決定

人民黨副黨首張建相氏談

人民黨副黨首 張建相氏는 六日午前十一時 本町新民館에서 記者團과 會見하고 合黨推進派의 合黨決定發表에 對하야 黨首와 重要幹部도 모르는 合黨은 있을수없다고 다음과같은 談話를 發表하엿다。

一、三黨合同決定及南朝鮮勞働黨綱領發表에 對하야 人民黨으로서는 委員長은 勿論 本人도 또한重要幹部들도 全然 모르는일이다

一、三黨合同을 原則的으로 贊成함으로 委員長이 提議한 것이 事實이나 그目的을 達키 어려워 一時 保留하자는 意見이 擡頭되여 人民黨內는 相當한 對立이 있어 委員長辭表까지 내엿음으로 一對立이 統一되여 委員長辭任問題가 解決되기까지는 合同問題를 一方的으로 推進시키지안코 黨內統一을 期하자고 妥協해오든中인데 아무了解도없이 이런決定發表를하는것은 理解키困難하다

一、委員長이 시골간後에 모든問題는 本人에게 決定하라고는하엿으나 問題가 重大하니만치 내自意대로 이以上發表할길없고 委員長께 이事實報告次 사람을 보냇으니 指示가오는대로 다시發表하겟다

보담더 合理的인 合黨工作을 推進하여야할것인데 不知中에 너무도 燥急히 發表한點에있어서 最終의 合黨策과는 背馳됨으로 나로서는 아직 責任을 질수없다 다만 合黨을 되도록 빨리 促進시켜야만 할것은 勿論이다。

責任질수없다

新民黨委員長白南雲氏談

合黨推進派가 決定發表한 所謂宣言綱領等은 新聞을 보고야 비로소 아랏스며 이에 對하야서는 責任질수없다고 新民黨委員長白南雲氏는 惠化町自宅에서 記者에게 다음과같이 말하엿다

合黨을 推進시키기 爲하야 우리 新民黨에서는 다음과같이 四段階로 나노아 努力하여왓다

一、合黨은 絶對必要하다 그럼으로 이를 贊同하여야 한다는것을 地方支部에 周知시키도록 努力하엿다

二、合黨의 時期는 兩友黨의 內部的統一을 기다려 合黨을 促進할것

三、友黨內部의 紛糾가 擴大되고 있으므로 兩友黨中에 어느 友黨이고 저內部가 統一되는대로 新民黨으로서 合黨準備를 開始하랴고하엿다

四、지난三日 新民黨常任委員會席上에서 合黨促進策으로서 두가지決定한바있엇다 첫재 이미 成立된 準備委員會로서는 合黨促進을 爲한 文書를 作成할것 둘재 對外的으로는 兩友黨內部의 對立關係를 되도록 居中調停할것 四日밤 連席會議라는것은 거기에 對한 新民黨으로서의 第一次準備會合으로 推測될뿐이고 最終的決定會合으로 생각치아니하엿든만큼 身病으로 出席도 못하엿다 따라서 所謂宣言綱領等은 新聞紙를 通하여 비로소 알엇다

同業三新聞停刊

朝鮮人民報·現代日報·中央新聞의 發行停止處分에 對하야 六日美軍第二十四軍司令部로부터 다음과같이 發表하엿다

美軍第二十四軍司令部特別發表(九月六日)=朝鮮에 駐屯하는 美軍隊의 安全을 侵略하는 理由로서 若干의 朝鮮人이 美軍隊의 손에 拘束當하엿다

朝鮮人民報·現代日報·中央新聞의 發行은 今後調査가 完了할때까지 停止한다 그處分은 一九四五年九月七日附 美太平洋占領軍總司令部 布告第二號에 依하야 決定한다

新民黨白黨首 突然辭意表明

新民黨々首白南雲氏는 지난五日 黨首辭任意思를 表明하엿다는데 그理由는 大略 다음과가치 推測된다 合黨準備委員連席會議에 出席하야 黨의 合黨政策과는 背馳되는 方式으로 黨首의 承諾도 없이 合黨決定에 署名한 新民黨合黨準備委員의 行動에 對하야 責任을 느낀것으로 보인다

混濁政界에 淸凉劑

韓民黨宣傳部의 發表

韓國民主黨宣傳部에서는 六日上午十一時 記者團會見席上에서 다음과 같은 談話發表가 있엇다。

一、一部에서 軍政을 非難하고 指導者를 원망하는것은 無理한일이 아니다。그러나 우리는 蘇聯式共産主義와 歐米式民主主義의 世界的對立과 戰時中農業生産의 不足에 依한 世界的食糧恐慌、出征軍人의 復員에 依한 失業洪水 特히 朝鮮에 있어서는 三八線의 人爲的遮斷에 依한 行政的、經濟的、交通的 不統一等事實을 直視할때 軍政과 指導者만을 攻擊할것은 아니다。우리는 이 重大한 事態에 直面하야 軍政을 擁護하고 民族의 總力量을 結集하야 統一民主政府樹立에 邁進할 處地인데 一部政黨에서 軍政을 誹謗하고 民衆을 煽動하야 破壞的行動으로 引導하는 것은 坐視할수없다。하지 中將이 秋霜烈日의 點을 指摘하야 인가 理解키困難하다

一、左翼三黨의 合黨反對派를 몰리치고 合同派는 南朝鮮勞働黨이란 名稱으로 合同을 强行하는 모양인데 同黨의 綱領草案을 보면 人民共和國의 樹立이 그黨의 目的이라하얏다 유ー고슬라비아와 外蒙古의 各人民共和國이 獨立國家인가를 아는사람은 勞働黨의 目標가 어데잇는가를 察知할것이다

一、監禁을 傳하는 北朝鮮의 民族的指導者 曺晩植先生이 西伯利亞로 移送되엿다는 說이 있는데 事實이라면 友邦蘇聯의 眞意를 疑心치않을수없다 人民의 自由와 民族의 自決權을 主張하는 蘇聯이 民族的要國者를 反託한다고 監禁하야 民族反逆者라 宣傳하며 甚至於 西伯利亞로 流配시킨다는것은 무슨意圖인가 理解키困難하다

國民大會準備會의 一年

【上】 副委員長 金俊淵

山高而秀雅하고 水深而淸澄한 漢江의 上流、勝地 八堂에는 臥龍岡이아닌지라 伏龍先生은 없었지마는 人傑은 地靈이라 그래도 一個王佐之才를 包藏하고 있었다。때는 昭和二十年夏 六月 어느날 아떵에는 漢室을 興復코저 하는 劉關張의 三人은 아니지마는 昔日의 衰運을 挽回코저하는 朝鮮總督府政務總監遠藤과 保安觀察所長長崎와의 二人의 來訪을 보게되었다。

泛波中流 江上에 둥실! 솟히떠나간다 姜太公의 낙시배가? 渭水아닌 漢水에 갈은 呂船이지마는 閑雲野鶴을 벗삼어 悠悠自適하는 興周의 秘策을 낙시대에부치는것이아니고、兵馬倥偬之際에 日皇의 殘命을 救하려는 奇計를 案出코저 開催된 軍事會議이었든것이다。三千里江山에 三千萬大衆이 사는터이라、別別人物이 다 있게되어 縛獻上을 進言하는

妄動

者도 있었고 日本을 爲하야 蘇聯攻美에 忠誠을 다하갯다는 人物도 뛰어나오게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發身策이라고 歸明할때를 알수는 없지마는 事實은 史實로 남어있게될것이다。

遠藤 長崎의 二人은 이 八堂船上에서 呂運亨氏에게 延安行을 勸하게되었다 그래서 呂氏는 그것을 擔當하고 盛某와 함께 가기로 하였든것이었다 前者에 呂氏는 『自己가 가면 延安의 毛澤東氏를 說服시켜서 日本及蘇聯과 聯合하야 美英을 치게할수가 있겠다』고 揚言한일이 있었다 遠藤은 이事態에 『참妙案이라!』고 생각하고 長崎는 呂氏를 遠藤에게 紹介하야 總督官邸에서 某氏의 通譯으로 만나게되었었고 또 다시 八堂會議까지 보게된것이었다 또 그前에 小磯總督時代에도 眞鍋와 連絡하야 總督의 斡旋下에 『民族維新會』라는 것을

呂氏

는 計劃해본일이 있었든것이었다

呂運亨氏는 延安行을 遂行치못하고 八月十五日을 마지하게되어서 그날午前七時半에 政務總監을만나서 決定을짓고 『共産革命으로一路邁進하겟다!』고 宣言하고 建國準備委員會를 組織하야 全國的活動을 開始하야 곳組閣(?)에着手하야 九月六日밤에는 발서 人民共和國을 만들어서 十三日에는 閣員의 名簿까지 全部發表하여 버리는 大活躍性을 表示하엿던것이엿다 八月十六日에는 蘇聯軍이 꼭京城으로 들어올줄알고 數萬群衆을 動員하여가지고 京城驛으로 歡迎나갓던것은 有名한 이야기꺼리엿엇다 그들은 京城以南까지도 全部 蘇聯이占領하게될줄알고 『파리스에미처못가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朝鮮에다가 共産主義를 實施하야 쓰비에트共和國을 만들려고 한것이엿엇으나 그들의 眼中에는 아모것도 보이는것이없엇고 눈아페 떨어진 全朝鮮의 政權이 보엿을뿐이엿다。

政權

이때에 決然히 일어나서 呂氏와는 別다른方向으로 나가는 一部의 人士들이 있었으니 그는 故宋鎭禹氏를 中心으로한 集團이어서 昨年九月七日에 國民大會準備會라는 看板을 내걸게되었다。九月中에 韓國民主黨、國民黨、朝鮮女子國民黨도 나오게되어서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共和國과 그背景되는 人民黨과 共産黨에 對立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國民大會準備會가 最初에 看板을내걸고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共和國과 抗爭하여나왓다는것은 記錄할만한

事實

이라고 하지안니할수없는것이다。나는 東亞日報紙上에 屢次 이國民大會準備會에關한것을 發表하엿고、더군다나 八月十五日의 紀念論文에는 四回에걸처서 解放後의 運動全般에 關하여서 論한바있었든故로 여기서는 長遠하게 論述하기를 避하고 몃가지要點만을 어가지고 이야기하려고한다。(계속)

男女中等國語敎科書

景福中學校 敎諭 張河一先生著

한글 맞춤법 교본

三版 값 25원

總販賣所 京城府中學町28 新羅書店

英文타이피스트 採用

左記에依하야 英文타이피스트一名을 採用하겟사오니 希望者는 自筆履歷書持參來社하시요
一、資格 高女出身經驗者
一、待遇 相當優待함
京城府中區太平通二丁目五八番地(朝鮮火藥銃砲株式會社二階)
世富蘭偲醫用品商會

朝鮮野球協會指定
野球볼 다이아몬드
京城府寬勳町一九七의一〇 電話光化門③一〇九〇番
金剛堂

男女運轉短期養成
特點 勤務人無休研究便宜 日曜每日實地有 練習手續簡單詳細
京城 下往十里派出所前 朝鮮第一自動車學院

무궁화 구함
京城府 多生産 運動場北 ... 商會
白邦工業社 電⑤二五七〇

알콜 求함
藥局方 工業用
貿金町三丁目 中央劇場越 高麗化學社
電本局二三二四番

腰痛 關節炎短期治療完治 賓任
太平通一丁目一八一 普恩藥房

訂正
九月五日附一面 國立서울大學 醫術大學 廣告文中 出願日은 九月十九日 九月十六日의 誤記이옴기 玆以訂正

映畵와 樂團
☆新秋 朴是春樂團 第一回公演☆
金剛火作演出·朴是春曲
戀愛双線曲 全五景
美國務省提供 軍政廳公報課提供
戰爭은 무엇을가저왓나
(一)美國의表情
(二)白衣天使
(三)敎育의自由
同時上映
9月7日부터 城南劇場

새로난 國旗 大봉 都散賣
새國旗大봉準備는 國民된義務 모양은 太極形、빗갈은 赤紅色 으로된 우리나라 국기봉 오는名節을 뜻깁히 마지합시다 最近巷間에서 規格과 色彩에 맛지안는 國旗大봉을 販賣하고 있는데 一般은 此에 特히 注意하시라
실을 바라나이다
◇地方及市內特約店募集
◎機會를 잇지마시고 至急申込하시요
事務所 京城府鍾路區鍾路四丁目八番地
文敎部 認定 國旗普及社
電話 東⑤八七九番

學生募集
一、募集人員 專門部第一部 四年制 夜間部 約二百名
一、應募資格 專門部 四年制以上男女中等學校卒業者及 專檢合格者
一、入學試驗科目 國語、漢文、國史、英語、常識問題
一、出願期日 九月十日까지
一、試驗期日 九月十三日早日十五日까지 三日間
一、志願手續 入學願書及履歷書(本校所定用紙) 修了證明書 卒業證明書 成績證明書 身體檢査合格證明書 夜間部志願者로現在勤務中에있는 者는 勤務處上司의 承諾書 受驗料 三十圓
寫眞二枚 (最近三個月以內에撮影한 脫帽 半身像)
其他詳細한것은 敎務課로 問議할것
京城府西大門區峴底町四六 (入學願書一部三圓)
國學大學 (舊國學學校) (認可申請中)

發賣劈頭暴風的人氣!
國文全譯 三國遺事
三國遺事는 三國史記와함께 우리歷史文獻中의 代表的典籍。原文이 漢文이가때문에 그秘奧는 오늘에 이르도록 民衆의것이 못되더니 史書衍譯會 여러분의 心血을 기울인 勞作에 史學界의 泰斗 鄭寅普先生의 校閱을 거처서 여기 中學生도 읽을수 있는 平易한 現代語譯이 最初로 나왓다 바야흐로 可親節。이小說以上 興味津津한 우리들의 香氣 높은 神話를 여러분의 案下에 보냅니다 金箔크로스裝幀華本 一部150圓
서울太平通·電本376
高麗文化社 發行

解放의기쁨도一場夢

南北滿에서彷徨하는百四十萬同胞

殺傷、掠奪、逐出의三重慘景

가혹한왜적의착취와 탄압에견듸다못하야 드되어 고국을떠나 멀리북만황야에를려가서 가구한생활을계속하든 二백만 동북(東北) 전재동포중 六十만명은 작년八월十五일해방후 귀국하였으나 남은一백四十만동포는 지금전화에싸혀 생사관두에 직면하고있다

착근귀환피난민의 체험담을들으면 귀국하지못한 수만혼 전재동포를은 조국해방의 기쁨도 일순간 ─ 소련군의진주와 팔로군(八路軍)의교체(交替) 중앙군의진공등 二중三중의전화로 랄미아마 원통하게생명을 희생당한자 적지안흐며 생명을만은지하고있은다 수십년동안 천신만고로쌓허노흔 생활근거를일조에송도리체 빼앗기고 가로에서 방황하는자 또한적지안타

더욱 이번국공(國共) 충돌에의하야중앙군 점영지꾸의 참상은 단적으로 엄언할수없는 참경에빠저그중 수십만의동포는 살상(殺傷)약탈(掠奪)축출(逐出)로인하야 거리로을며부르지즈며 쪼껴다니는광경을보였다 이리하야 생활을게속하자니 근지를일코 고국으로도라오자니 여비조차없을뿐아니라 교통까지두절되여 그야말로 안자서 죽엄만기다릴수박게없는 참상이라는것이다 정당국의 시급한대책이있어야할것이다

◇◇◇◇◇◇◇◇ 死活은國內同胞의責任

韓中協會、救濟對策에一般協力要望

이런사태를만일그대로방임한다면 닥처오는엄동에 예상할수없는대참극을 연출할우려가있음으로시내장교장에있는 한중(韓中)협회에서는 동본부회장 김동순(金東淳)씨를비롯하야 전회원이긴급구제대책에대하야 협의를거듭하는일방 군정당국의시급구출방도를 요망하고있는데 동협회에서는요지음군정청에서 원호회중앙전형위원회를개최하고 전재동포현지에사절단(使節團)을보내어 구출에최선을다하기로하였다 이문제는빼여만동포와사활문제로서 특히국내동포의참다운동정과군

金佐鎭氏追悼를準備

일정시대에직접행동으로서 독립운동에一생을바친고 김좌진(金佐鎭)씨가작고하신지 十七주년을마지하여 그유지를추모하고저 시내명치정(明治町)一정목三四번지에 추도준비위원회를두고 관계자의연락을구하고있다

素沙柳韓 勞總結成

소사(素砂) 유한양행(柳韓洋行)종업원들은 전평(全評)을탈퇴하고 새로히 대한로총(勞總)으로가입 四일하오四시동소에서 분회결성식을성대히거행하였다

間島實情報告

今日基督靑年館에서

아직까지 간도(間島)에 남어있는六十萬의 우리동포들의 안위는 어떠케되어있는가? 그들은 다시쪼기여 순수개간한땅을 비리고 유랑하며두만강을 건너오지안흐면 안되게되었다 먼저 건너온 간도유지로조직된 연변동지회(延邊同志會)에서는 간도실정보고대회(間島實情報告大會)를 금七일오후二시(土)시내 기독청년회관에서 개최한다고한다

寶城農組의暴動眞相

八·一五流血慘狀은計劃的

殺傷四名、煽動者一黨은軍裁에

지난八월十五일 해방기념일에폭동을이르킨전남보성농조(寶城農組)간부전남보성군율어면칠음리(全南寶城郡栗於面七音里)김용규(金容圭)(二五)이규하(李奎夏)(三七)이용래(李鎔來)외四十七명은 지난八월十日경 살인(殺人)살인방조(殺人幇助)폭행(暴行)동의죄명으로 경찰에체포(그중十九명은도주)되어 취조를마치고 광주지방검사국에송국되어 이원홍(李源弘)검사가담당취조중 오자을 기소되어 군정재판에회부되었다

검사국조서에의하면 전기김용규외四十九명은 작년九월초순에 부근다섯부락을중심으로 농민조합을조직하고 또 금년一월에는 역시같은사람으로서 청년동맹을 조직하야 김용규가 위원장이되어 그지휘아래 전회원이 움직이어왔는데 지난八월十五일해방기념식날 전기와五十명은 이동리(梨洞里)뒤人산삽속에서 밀회를하고 八·一五일의기념식을 독자적으로 거행할것과 경찰탄압의배격을 부르지질것 또 자위대를조직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야 八월十五일 농민조합원과민청(그후청년동맹으로개조)원이一천여명이 주민을선동하야 기념식을 거행한후 이승만박사와김구선생을 타도하야 국외로 추방하자는 선전삐라를여러곳에부치고 곤봉(棍棒)을든 자위대를선두로 시위행렬을 할때 경비중의 경찰서지서(警察署支署) 순경호(孫京鎭)외 두순경을 가두에서 발견한전원은 순경들이 가지고있는 장총과 수갑등을 뺏고 곤봉으로 구타하야 그중 정종현(丁宗鉉) 순경을 즉절명케하고 다른 순경은 중상케하였다 그러고 또 이수라장에서 도주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율어(栗於)분회장 조병두(曺秉斗)씨를 추격구타하야 사경에이르게하고 이것도 부족하야 경찰지서의 보호실을 곤봉으로 파괴한후 그안에있는수용자를 끌어내는등 실로처참한 테로행동을 백주에감행한 사실로 드디어 경찰대의 다수출동에의하야 검거되엇든것이라한다

開校앞은綜合大學

注目되는學生들의態度

임이 국립서울종합대학교설치는 법령으로서발포되는 각부책임자도임명하는한편 九월부터개학하리라하는데 배워야할학생측은 예상과는반대로 종합대학안을 근본적으로반대하는기세로 신학기에앞하지않은 학원의이상을 보이고있다 이뿐더러 각학부의 교수진영의개편은 아직도정식발표가없는이때 五일각학교제도대표 교직원들은 다음과같은취지로 반대성명을내고있어 이문제의원만해결이 주목되고있다

◇서울大學理工學部敎職員‖서울대학 교직원三十八명은五일 신설대학교에 봉직할의사가 없음을 당국에전달하기로 하였다고 성명서를 내었다

◇京大醫學部學生大會‖경대의학부학생회에서는지난二일신입생과상경학생들이 긴급의학부학생대회를 개최하고 종합대학에대한 四원칙을결의하야절대반대의성명을하였다

◇女子師範大學々生會‖녀자사범대학학생회에서는 이대학안이 아프로 악영향을미칠것을 생각하여종합대학안을 절대로반대한다고 五일제二차의 성명서를발표하였다

三十三人遺家族 富平서集團營農

三十三인유가족중지회에서는이번에 부평(富平)에있는 九만평의농지를 신한공사(新韓公社)로부터 대부밧고 또한 식산은행(殖銀)의호의로 자금융통을 어더가지고 생활에 곤란한 유가족들은 한곳에 몽치어 영농으로서 생로를얻게되었다한다

人民、現代、中央 獨立四新報를檢索

六일상오十시 시내동업 인민보(人民報)와현대일보(現代日報) 중앙신문(中央新聞) 독립신보(獨立新報) 각신문사를돌연 『엠피』가출동하야 교통을차단하다십히하고 사옥을엄밀히검색하얏다

古美術展覽會

조선고미술협회(朝鮮古美術協會)에서는 우리나라五천년의文化사에 가장찬난한금석물 광랑로출품고려 이조도자기 진품서화등 수백점을 시내소화동 송죽원(松竹園)에서 七、八양일간에걸처 一반에게전람할하리라하는데 조선고대문화의 예술을찬양하는 뜻이 클것으로기대된다

共黨員僞幣事件第十回公判

一貫으로事實否認

確證提示코犯罪를追窮

공당원위폐사건 제十회공판은 六일오전열시부터 개정 ─ 피고 신(辛光範)에대한사실심리가 시작되였는데 재판장의질문이 사건의핵심점에이르자 피고는 전면적으로 사실을부인하고 또 재판장은 압뒤에 싸허있는 증거품을 일일히제시하며 혹은 위폐제조현장을목격햇다는 증인심문조서를 랑독하야 범죄사실을 추궁하는등 이날오전공판도 역시피고의 일관한 사실부인으로 끗을마치고 오후두시에 일단폐정하였다

◇僞幣事件第九回公判續報‖공당원위폐사건제九회공판 오후심리는 두시부터시작되어 피고 정명환(鄭明煥)에대한 사실심리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정은 처음부터 사실을부인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경찰고문문제에 이르러설로 세시간이란 장시간을 보내며 고문하였다는경관을 비난함과동시에 고문당할때의광경에대한 진술이있은후 오후일곱시반에 폐정하였다

檢事局 寄附한건事實

機密費事件公判

전직형사국장과 변호사모리배를중심으로한속칭검사국기밀비(機密費)사건의관계자 전사법부형사국장 최종석(崔宗錫) 변호사 조평재(趙平載) 상인 이종민(李鍾旼) 박찬영(朴贊英)비명에대한 증회(贈賄)및수회(收賄)사건 제一회공판은 六일오전열시부터대법원법정에서 원(元)검사입회밑에개정되어 이(李)재판장으로부터피고들에대한 인정심문이있은후 사실심문에들어갓는데 피고이종민은 『내가다른사건으로검사국에 검속되었다가 그후석방되었을때 조(趙)변호사가 사법부에 十만원만기부하라는 요구가있기에 기밀비로준것이고 사법부의사업에쓰라고 정식기부를한것인데 그사용방도는전연모르는일이라』고진술하였다

北平留學生會主催로 講演·漫談의밤

중국북평유학생회(北平留學生會)에서七일하오七시부터종로기독청년회관에서처단卅九월일본을거처중국에서돌아온북평중국대학연구원국제정치학부생김성계(金成桂)씨의『일본을거처고국에 도라와보니』라는 연제로 강연이있고 또한 황재경씨의 만담을와동요도 있을터이라한다

올림픽은瑞西

萬國委員會서決定

【로─잔十六日UP發朝鮮通信】美國오림픽委員會는一九四八年度의오림픽大會를瑞西『상모─리쓰』에서開催하기로決定한다음 一九五二年度오림픽大會開催場所에關하야 討議를開始하였는데 目下그候補地로는『데트로이트』『마네아포리스』雅典『헐신키』『스록호롬』『로─잔도─』의六個都市가있다

오림픽委員會는 또한一九四六年十月以後 職業選手가아닌 스키─選手에限하여 一九四八年冬季 오림픽에參加시키라는國際스키─協會의要請를採擇하였다

朝鮮올림픽大會 競技種目을決定

朝鮮體育會主催朝鮮올림픽大會는 十月十六、七、八、九、二十日의五日間에걸처 서울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된것은 이미報道한바이어니와 大會種目은 다음과같이 決定되었는데 申請締切은 九月末까지이다

蹴球 野球 庭球 籠球 排球 卓球 送球 럭비蹴球 陸上 自轉車 拳鬪 力道 레스링 劍道 體操 機械體操 登山

美容院讓渡
現盛業中 鍾光苑南町七 八然興舍硝子店二層으로

電氣用파이프、리야가、縫合其他製造用(內徑一斗)肥料涌用釜鍋
和泉町一九五 永光商會 李潤煥 電光一四〇九

買畓
田畓을多少不拘하고買入함
市內黃金町一丁目四六 電話本局二六四六 韓國政治經濟研究會

8日부터 아리랑 弱한者를救함 明洞劇場

製作種目
誘導電動機(모─다)
變壓器
電氣機器一切
各種精密機械
其他修理
特히電動機及變壓器修理에對하야는諸般便利를圖謀하야安價로迅速補償하옵나이다
美軍政管理
三菱電機會社 朝鮮製作所
總支配人 李南圭 副支配人 徐鎭英 總務 曹成昌
仁川府萬石町五一〇番地 電話 一五〇九 一六三三番

5日부터 빙갈의大旋風 서울劇場

演公 劇團 青春劇場
出演 和仁 鍾南 安蔡 作 光 春 金
出裝
미륵조
復讐篇(五幕七場)
5日부터 開演時間 낮一時 밤六時半
期待의名作 드디어登場!
國都

久耐光明 金鋼電球

7日부터
돌돌이의冒險
解放以後南一映畵社첫作品
製作…朴昌源 脚本…金永壽 潤色…安碩柱 監督…李圭煥 撮影…梁世雄 照明…金聖春
朝鮮映畵協會
出演者
故鄕 一幕 同時公演
後援出演 芳山公立國民學校 往十里體育會
晝午前十時開場
國際劇場

苦學生救護 戰災同胞救援
全國男女學生藝術씨름大會
時日 9月7日~15日 9日間 午前十時부터
贊助特別出演
高麗交響管絃樂團
太平洋歌劇團
國劇社
三和舞踊研究所
줄타기·漫談
各道名唱
於 昌慶苑